

약속III 문화가 융성한 관광콘텐츠 육성으로 문화·관광도시로 성장하겠습니다.

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신청

관리번호	분야	중점 추진과제	사업주체	신규여부	사업시기	완료시기
III-8	관광	자연환경은 더 아름답게	가평군	계속	중기	임기 내
추진부서	경제산업국	관광과	관광기획팀	-	담당자	-
추진현황	☐ 완료 ☐ 이행후계속 ☐ 정상추진 ☐ 일부추진 ☐ 보류 ☒ 폐기					공정률
						-

□ **추진방향**

- 국내·외 관광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및 가평군과 춘천시의 상생발전과 관광브랜드 가치 제고
- 관광특구 지정을 통한 관광 가평 이미지 제고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□ **사업개요**

- 사업기간: 2020. 12. ~ 2025. 12.
- 사업위치: (가평군) 가평군 자라섬 및 가평읍 도심 일원, 달전리~금대리공유수면 (춘천시) 남이섬 및 경강, 강촌 일원, 방하리 일원 공유수면
- 사업규모: 23,568,479㎡(특구 지정)
- 소요예산: 130백만원(군비) ※ 기투자
- 사업내용: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

□ **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**

구 분	목 표	추진계획	목표이행률	공정률
계			100	80
2022 하반기	관광특구 지정 신청서 보완	· 관광특구 지정 신청서 보완	30	30
2023	관광특구 지정 신청서 보완 및 협의	· 관광특구 지정 신청서 보완	25	25
2024		· 관광특구 지정 추진 협의 (가평군, 춘천시, (경기도, 강원도, 문화체육관광부)	25	25
2025	관광특구 지정 완료	· 경기도-문화체육관광부 협의 완료 · 관광특구 지정 완료	20	

□ **추진실적**

구 분	추진실적		비 고
2022	3분기	· 춘천시 업무협의(용도지역 및 구역 구분 도면 작성, 진흥계획 적정성 보완 등)	
	4분기	· 지정신청 보완 (경기도)	

구 분		추진 실적	비고
2023	1분기	· 보완사항 합동점검 (경기도, 강원도) · 사전 협의 (문체부, 경기도, 강원도) · 구역 조정 협의 (가평군, 춘천시)	
	2분기	· 관계기관 회의 (경기도, 강원도, 가평군, 춘천시) · 방문 협의 (문체부, 가평군)	
	4분기	· 관계기관 회의 (경기도, 강원도, 가평군, 춘천시) · 관련 회의 (경기도, 강원도, 가평군, 춘천시) · 지정 신청 추가 보완 자료 제출	
2024	1분기	· 실무 협의(경기도, 강원도, 가평군, 춘천시) · 실무 협의(문화체육관광부, 경기도, 강원도, 가평군, 춘천시)	
	2분기	· 지정 신청 재보완 서류 제출 · 관계기관 회의(경기도, 강원도, 가평군, 춘천시) · 지정 신청 보완자료 제출 · 실무 협의(경기도, 가평군)	
	3분기	· 지정 신청 재보완 요청(경기도→가평군) · 지정 신청 재보완 자료 제출(가평군→경기도) · 문화체육관광부 협의 결과 통보 및 추가 보완 요구(경기도→가평군) · 관계기관 회의(경기도, 강원도, 가평군, 춘천시) · 추가 보완 요구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(경기도→가평군) · 공약이행평가단 제5차 회의 / 2024. 9. 9. - 내용: 사업기간(~2024. 6. → 2025. 12.) 및 세부추진일정 - 사유: 관광특구 지정 신청서 보완 및 관계기관 협의에 장기간 소요	
	4분기	· 추진방향 검토 의견 제출(가평군→경기도) ※ 전문기관 자문 의견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 입증 불가 · 행정절차 중단 및 일건서류 반송 알림(경기도→가평군)	
2025	1분기	· 공약이행평가단 제7차 회의 / 2025. 3. 21. - 내용: 공약사업 제외 - 사유: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불가 결정으로 재신청에 필요한 사전 조사 등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공약사업에서 제외하고 일반사업으로 추진	

□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

- 춘천시 공동 추진한 북한강 수변관광특구 지정 신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불가 결정으로 공약사업 추진은 폐기하고, 가평군 단독 지정, 범위 등을 검토한 후 추진 방향 결정 예정

□ 향후계획

- 가평군 단독 관광특구 지정 신청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 여부 결정

□ 기대효과

-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관광도시 지역 이미지 확대
- 관광소비(생산, 소득, 취업, 세수 유발) 및 민간투자 증가